('19. 06. 17(월), 해외언론비서관실)

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외신종합

□ 총평

● **3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에 대해 '평화, 혁신, 포용' 관련 양국 협력 기대감 피력했으며, 한반도 평화 중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**

● **특히 각국 현지 언론은 핀란드 '스타트업 서밋', 노르웨이 '오슬로 포럼 기조연설', 스웨덴 '의회 연설'에 관심**

<평화>

○ 핀란드 <일간지 일따 사노마뜨>는 '3차 북미정상회담의 핀란드 개최 가능성'에 대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"언제나 외교적 지원 준비돼 있다"고 밝혀

○ 노르웨이 <TV2 뉘헤츠카날른>은 "문 대통령이 현재 북미 사이 중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" 평가

○ 스웨덴 <스베르게스 라디오>는 "스웨덴은 중립외교 표방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협상 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"며 스웨덴 역할 강조

<포용·혁신성장>

○ 스웨덴 <예테보리포스텐> "'혁신성장',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북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"

○ 핀란드 <뚜른 사노마뜨> "여러 제도적,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, 더 긴밀한 협력은 양국과 더불어 국제사회에도 분명 유용"

○ 노르웨이 <TV2 뉘헤츠카날른> "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국. 2006년 한-유럽 FTA 이후 양국은 활발히 교역"

□ 주요 행보별 세부 평가

① 핀란드 (6.9-6.11)

○ 주요 보도: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의 핵심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평화 구축에 대한 지원 약속. 스타트업 기업 활동 위한 계기와 분위기 마련

- **<일간지 헬싱긴 사노마뜨>** '평화협정의 핵심인물' 제하 "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협상 과정에서 회담을 성숙하게 이끌고 한반도의 통일 향해 힘쓴다"며 세계 어디서나 "북한 비핵화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는 특별한 역할"이라고 평가 (6.11)

- **<공영방송 울레>** 니니스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북미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. "평화 구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우리는 매우 열려있다"고 발언. 미래는 북미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 (6.10)

○ 행보별 반응 : 양국의 민간 협력 증진 및 기업 비즈니스 촉진

- 정상회담·MOU 협정식: **<경제 매거진 테크니이까>** 중소기업, 스타트업, 혁신 관련 양해각서의 목표는 민간기업 간 협력 증진 및 혁신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. 인재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는 전문가가 부족한 핀란드 성장에 도움 (6.11)

  ▲ **<경제일간지 카우팔레흐티>**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센터 설립 위한 협약 체결. 내년에 문 여는 스타트업 센터는 한국 기업과 북유럽 간의 협력 증진 위한 것 (6.7)

  ▲ **<일간지 일따 사노마트>** "헬싱키와 부산 간 항공편 개통 협정. 이는 유럽에서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으로 취항하는 첫 직항편"(6.10)

- 한-핀란드 스타트업 서밋: **<공영방송 울레>** "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기업 활동에 있어 긴밀한 협력 증진시키고자 해"(6.11)

  ▲ **<일간지 뚜른 사노마뜨>** "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위상 개선을 약속"…대한민국과 핀란드는 인공지능, 자율시스템과 AI공항을 위한 국제적인 도덕적 관행과 표준을 만드는 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어. "핀란드와 한국은 국제사회 역할에 있어서 좋은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" (6.11)